

전통요소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I

-왕 의례복식의 문양을 중심으로-

Fashion Design with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elements I

-Pattern of King's Formal Dress-

김 경 실

Kyung Sil Kim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겸임교수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turn into the 21st century, people's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Korean traditional costume(Han Bok) is getting highlighted and new term of 'Han Ryu' has been begotten. (Han Ryu means big Korean cultural wave.) Han Bok as a component of Han Ryu is now on the move with the national interest and support.

Analysis and modernization works on Han Bok especially traditional royal costume should be taken urgently when we consider its symbolic meaning, representativeness and diversity. To respond on this need, as a process of research, we explored and find the essential design elements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royal costume, attempted to apply those elements to the costume of modern style by making it as following. As a result of our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 of Korean traditional royal costume, it might be summarized as reverence-implying loftiness, stylish and pure dignity, and auspiciousness harmonized by yin and yang.

We observed closely the elements of its' design such as pattern, color, and formation. In this paper design, motives were sought for out of traditional royal costume and hereby a few design works wearable in modern living were made.

The work chose King's formal dress that is relatively open for diverse modification in formation and color. Genderless characteristics of modern costume and suitability of formal wear we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oftiness and dignity in King's formal dress might be observed in its pattern. Most prominent pattern is dragon which has top position among mysterious animals. And auspiciousness in King's formal dress can be observed in its color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in its grand fold-on-fold formation.

The work produced two suits of lady's day time formal suit and an evening coat which are good in any occasion of official or cultural event.

International designers including Asian adopt traditional elements and transfer them in the fast track of modernization. Especially, we are able to guess the trend of cross over using between the

countries with similar culture and national background. Therefore, the effort to promote Korean excluded image and to produce competible goods should be continuous with protection of the essential traditional royal costume's elements.

Key Words : king's costume, modernization, aesthetic, beauty of loftiness

I. 서론

20세기말 이후 각 국가들은 전통문화를 고부가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패션산업에 있어서도 에스닉 혹은 퓨전은 이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에스닉풍의 의상은 1960년대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유행속의 한 경향으로 자리 잡아 1980년대 초반에는 재패니즈룩이, 1980년대 중반에는 중국풍의 오리엔탈룩이 유행하였다.¹⁾ 21세기로의 진입 이후에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한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류라 하는 고유명사가 창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문화관광부등의 국가기관의 발주로 구성된 “韓 STYLE”은 국가이미지 형성 및 제고(提高)의 이유로 국가차원 지원전략에 중요부분을 점유하게 되어 각 분야에서 전통요소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상징성이나 현존 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한국 궁중복식에 대한 분석과 현대화 작업은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부문인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요소, 특히 한국 궁중복식에 나타나는 조형요소를 현대의 복식에 적용하여 현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전통 복식 현대화작업에 관한 선행연구로 박선경, 권순교(2006)는 전통복식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활용하여 웨딩드레스 디자인에 적용하였으며, 김민자(2007)는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제다움 찾기”에서 전통복식의 현대화작업을 자기 이국화 작업으로 보고 에스닉룩은 일련의 하이브리드패션이라 정의하고 있다.

연구범위는 현대의 복식이 요구하는 *genderless* 특성과 *formal wear*로서 적합한 범위로 한정하여 그 구성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며, 명도와 채도가 낮아 색채의 소재 활용이 다양한 구장복(九章服)과 *coat*로 활용이 적합한 곤룡포(袞龍袍)같은 남성 궁중복식으로부터 디자인요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왕의 구장복과 용포에서 모두 관찰되는 용문양(龍紋樣)을 중심으로 현대에 입을 수 있는 의상을 디자인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 결과물로 공식적인 혹은 문화적인 모임을 위한 여성 *formal suit* 두 점과 *evening coat*를 제작하고자 한다.

디자인에 앞서 먼저 현대화하려는 복식의 조형요소 중에서 형태와 색채, 문양 그리고 복식

1) 유송옥외 2인(2006), 「패션디자인」, 수학사. p. 49

의 상징 및 착용례를 고찰하여 조형요소를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전통궁중복식의 조형미를 찾아낸다. 또한, 현재 디자이너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 과정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중복식조형요소들 중 문양을 중심으로 응용한 의상을 제작하고자한다.

II. 조선시대 왕 의례복식에 나타난 조형요소와 의미

우선 연구의 대상인 왕의 의례복, 즉 왕권을 상징하는 면복(冕服)인 구장복(九章服)과 상복인 곤룡포(袞龍袍)의 구성과 형태, 색채, 문양 그리고 그 상징 및 복식의 착용례를 살펴보고자한다.

1. 왕 면복(冕服: 九章服)

왕의 표신(標信)이며 그 상징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면복은 왕의 혼례에 법복으로 입었으며, 종묘와 사직에 제사 지낼 때 제복으로 입었고, 정조(正朝), 동지(冬至), 조회(朝會) 때 착용하는 대례복이다.²⁾

현재 중국의 전통복식은 만주족이 왕조였던 청조의 복식 즉 치파오의 형태이며 동아시아지역 한족문화권 왕의 대례복이었던 면복 고유의 형태는 남아있지 않다. 반면 한반도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 제작되고 착용되었으며, 유물이 남아있으므로 면복은 한국의 전통 궁중복식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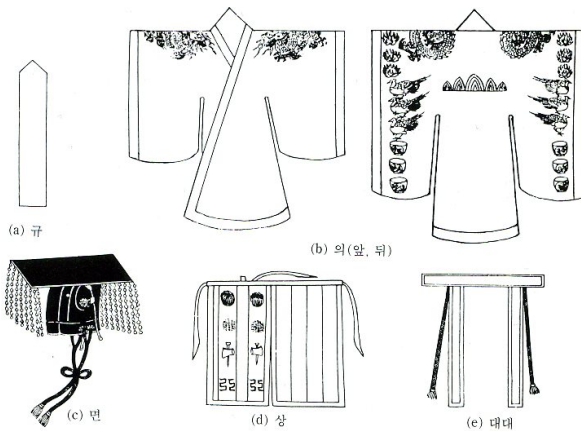
면복 착용 시 손에 쥐는 서신(瑞信)은 규(圭)이며 옥으로 만든다.³⁾ 면류관(冕旒冠)은 길이 하늘을 상징하는 현색, 안은 땅을 상징하는 혼색으로 제작된다.⁴⁾ 면복의 의에는 산(山), 용(龍), 화(火), 화충(華蟲), 종이(宗彝) 5장문을 그리고, 상과 폐슬에 조(藻), 분미(紛米), 보(黼), 불(黻)의 4장문을 수놓는다. 문양 중 산은 진정(鎮定)을, 용은 신기변화(神奇變化)를, 화는 조약광휘(照約光輝)를, 화충은 문체가 화미(華美)함을, 종이는 예기(禮器)로서 효(孝)를 뜻하며 그릇에 그려진 호(虎)는 용맹을, 유(虺)는 지혜를 상징한다, 조는 물풀로서 문체의 화미함을, 분미는 쌀알로서 양민(養民)을, 보는 결단(決斷)을, 불은 신민의 배악향선(背惡向善)을 상징한다.⁵⁾ 상(裳)과 폐슬에는 앞쪽에 조(藻), 분미(紛米), 보(黼), 불(黻)의 4장을 수놓았다. 중단은 청색으로 만들며 깃·도련·수구에 흑색 선을 대었고 깃에는 불문 11개를 금박하였다.⁶⁾ 패옥은 양

2) 유송옥(1998), 「韓國服飾史」, 수학사. p. 144.

3) 增補文獻備考 卷79, 章服條.

4) 尙房定例 大殿冕服.

5) 유송옥(1998), 앞의책. p. 150~151



<그림 1> 전하면복도 부분(세종오례의관면도)



<그림 2> 면복착용도

<표 1> 왕 면복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조형요소	내 용
색채	현색(Black-N1), 청색(Blue-B4/8), 적색(Red-R4/14), 백색(White-N9)
소재	silk 100% 사(紗)
문양	용, 불꽃, 산, 꿩, 제기, 물풀, 쌀알, 도끼, 글자
형태	H line

허리 아래로 드리운다.7) 수(綏)는 적(赤), 청(靑), 현(玄), 표(縹), 녹(綠)색의 오채(五彩)로 짜서 만들었다.8) 방심곡령(方心曲領)은 백단으로 만들고 적말(赤襪)과 적석(赤舄)은 붉은 비단으로 제작한다.

2. 왕 상복(常服: 袞龍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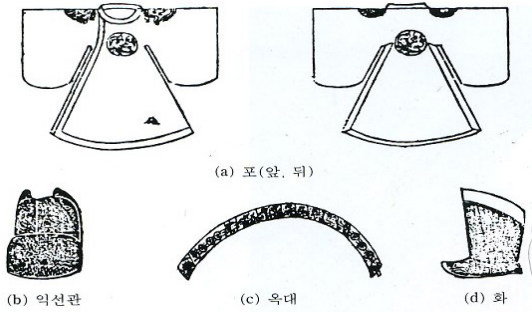
왕의 상복인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는 왕이 일상시무를 볼 때 입는 시무복(時務服)이다. 상복을 「국조오례의서례」 전하시사복도설(殿下視事服圖設)에서 보면 그 구성은 익선관, 곤룡포, 옥대, 화로 이루어져 있다.9) 조선 후기 영조의 어진을 보면 익선관이 일반적인 관모에 비해 관 후면이 높이 치솟아 있으며 양각은 둥글고 넓게 올라와 있다.

6) 유송옥(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수학사, p. 111~112

7) 國朝五禮儀序禮 卷之1, 吉禮 祭服圖說.

8) 增補文獻備考 圖79, 章服條.

9) 國朝五禮儀序禮, 殿下視事服圖設



<그림 3> 왕 상복도 (국조오례의서례)



<그림 4> 영조 상복착용어진 (고궁 박물관)

<표 2> 왕 곤룡포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조형요소	내 용
색채	적색(Red-R4/14), 자색(Red Ocher-RP4/12), 백색(White-N9), 황금(Gold)
문양	용, 구름, 산, 물결
소재	silk100% 직물에 문양이 직조되는 운문사
형태	A line

곤룡포(袞龍袍)는 용문의 보를 달아 입으므로 용포(龍袍)라고도 한다. 「국조오례의서례」 전 하시사복도설에 보면 곤룡포는 대홍단으로 만드는데 여름용으로는 대홍사를 쓰며 포의 전후 좌우에 금오조원룡보(金五爪圓龍補)를 단다.

옥대(玉帶)는 표면에 조옥으로 투각하여 금으로 그려 만들며 이면은 대홍단으로 짜서 만든다. 화(靴)는 흑녹자피(黑鹿子皮)로 만들며 여름용으로는 흑칠피로 만든다. 「국조오례의서례」에서 제정된 대홍단의 곤룡포의 제도는 <그림3>과 같다.

III. 조선시대 왕 의례복식에 나타난 조형미와 그 분석

복식은 기후와 환경 같은 물리적 조건 뿐 아니라 종교적 신조, 주술, 미적본능, 사회적 지위 등의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반영한다.¹⁰⁾ 그러므로 왕의 의례복식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앞서 고찰한 조형요소에 따른 조형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0) Francois Boucher(1987). 2000 Years of Fashion. New Chapter by Yvonne Deslandres Harryn. New York: Abrams, Inc., Publishers.

1. 숭고미(崇高美)

조선왕조의 기조사상인 성리학의 정명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은 반드시 상하, 존귀, 귀천으로 구분되며, 각 계층은 자기에 합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곧 명분이며 이러한 명분이 바르게 지켜지는 것이 바로 정명인 것으로 16세기말의 성리학자 이이(李珣)에 의하면 그 구분의 기준은 “현부(賢否)”에 있다.

이런 이유에서 왕은 군존신비로 특징 지워지는 정명의 논리를 강조하는 복식의 착용이 불가피하였으며, 그 복식의 핵심은 초월적 숭고함의 시각화이었다.

Longinos(213~273)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임과 함께 인간 이상으로 위대한 자, 즉 그를 초월하는 높은 것을 동경하는 존재이다.¹¹⁾ 즉 숭고는 위대한 정신이라고 정의되며 이 특질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왕조의 궁중의례의 정신적 배경에서도 나타난다. 인간적 위대성으로서의 숭고미¹²⁾는 성리학의 존귀 즉 현자적 특질과 유사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와 숭고는 양자가 다같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쾌를 주는 일치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숭고미는 궁중의례에 있어 천명을 받은 신분으로 궁중의례를 집전하는 왕의 복식에 표출되고 있다.¹³⁾

왕 의례복인 면복과 곤룡포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양은 동아시아지역의 제왕의 상징이었던 용문양으로 면복의 양 어깨와 곤룡포의 가슴과 등, 양어깨에 시문된다. 용은 한국 고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그 사용의 예가 빈번히 관찰되며, 용을 비롯한 모든 영수 또는 성수, 영조류 등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과 이상의 상징으로 명군성왕이 나타나면 성수가 출현한다는 이유에서 흉배에 여러 가지 문양을 채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용을 중심으로 모든 영수, 영조가 용 이후 차생(次生)이라는 순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온갖 형태의 영수를 파생시켰다. 이는 계급의 분화를 합리화시키고 차생이라는 구절로 초월적 존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정치적인 순차윤리와도 관계가 있었다.

2. 격조미 (格調美)

왕과 왕가의 의례복식의 핵심은 복식에 표현되는 예(禮)로서 이는 왕과 왕세자, 대왕대비와 왕비의 복식, 의빈척신의 복식, 예의 절차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상궁과 각 차비의 복식에서 각각의 품격에 맞게 표현되고 있다.

11) 백기수(1977).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 79.

숭고미(the sublime, das Erhabene)에 관한 성찰의 역사는 일찍이 고대 그리스 말기의 Longinos의 《숭고론》에 까지 기원한다.

12) 백기수(1997). 전계서. p. 79.

13) 서우석(1986 가을). “韓國音樂美의 現象學的 敘述-韓國傳統美의 特殊性과 普遍性”. 「예술과 비평」. p. 247.

조선왕조 성리학의 대가인 퇴계 이황(1501~1570)은 예술적 품격(品格)과 미적 인간상이 내포되어 있는 성리학적 예술관을 표명하였으며, 시와 서를 인격실현의 여사(餘事)로 인식하였다.¹⁴⁾ 퇴계가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 이상은 비단 동양적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미와 도덕을 하나로 하기 위한 인간성의 이상을 항상 지향하고자 하였던 쉴러(Johann C. F. Schiller:1795~1805)의 미학, 즉 인간품격의 완전함의 극치는 도덕적 미라고 하는 그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¹⁵⁾으로 도덕미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쉴러가 추구하는 미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말하고 있는 ‘도덕적 선의 상징으로서의 미’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적 예법(禮法)인 것이다.¹⁶⁾

조선왕조 기초사상의 일부인 도덕적 품격과 미와의 관계는 궁중의례의 기초가 되는 예(禮)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조선왕조 궁중의례절차와 복식 전반에 걸쳐 예를 통한 격조미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격조라 함은 체제에 맞는 격과 운치에 어울리는 조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품격과 지취를 일컬음이다.¹⁷⁾

왕의 대표적 의례복식인 면복은 관에서 속옷까지 약 20점에 달하는 구성을 지닌다. 면복과 부속은 그 양식이 국조오례의서례, 국혼정례 등의 법전에 명기되어진 대로 착용되어서 그 갖추어진 품격을 보존하였다.

3. 길상미 (吉祥美)

궁중의례의 복식과 절차 및 기물에는 의례의 주체인 왕에게 올리어지는 각양의 길상적인 우의가 음양오행의 형식으로 내포되어 있는데 음양의 원리란 본래 흐린 날과 갠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양의 양기와 풍우의 음기의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의 정기는 사람의 영기를 자극하여 신체적 변화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늘에는 일월이 있고 땅에는 음양이 있으며 하늘에는 오성이 있고, 땅에는 오행이 있어서¹⁸⁾ 이 오행을 상징하는 색이나 형식을 상생(相生)의 구조로 복식에 배열하면 그 착용한 자에게 우주에 편재하여 있는 일련의 기운을 더하여 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인간의 신체나 회노애락의 정(情)은 기(氣)에서 성립되고, 도덕적으로 선한 성(性)은 이(理)가 내재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¹⁹⁾ 군신관계를 이러한 원리에 비유한다면 양과 음의 관

14) 閔周植, 前掲書. p. 45.

15) 李貞淑(1979). “Schiller美學에 있어서의 人格美”.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p. 23.

16) 李貞淑(1979). 前掲書. p. 43.

17) 「國語大辭典」(1973). 民衆書館. “格調”.

18) 유명중(1989), 前掲書, p. 331.

19) 이상은(1990), “유가의 예악 사상에 관한 研究”, 성균관 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p. 56.

계와 같고 천과 지의 관계로도 비유된다. 양은 천도(天道)요 군도(君道)이며, 음은 지도(地道)요 신도(臣道)로서 여기에서 군신 관계는 군존신비로 특징 지워진다.²⁰⁾

왕 의례복에 나타나는 길상의 미는 그 제작의 형식에서부터 배색에 이르기 까지 복식전체를 음양오행의 우주원리를 상생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면복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9장문의 시문(施紋) 과정에서도 음양의 원리가 관찰된다. 회는 양사(陽事)이기 때문에 옷위에 시문하므로 용, 산, 화, 화충, 종이는 그림으로 그리고, 수는 음공(陰功)이기 때문에 아래옷에 베풀게 되므로 조, 분미, 보, 불의 문양은 수를 놓게 되는 것이다.

4. Design을 위한 왕 의례복식의 기표와 기의 분석

왕 의례복에 나타난 조형미의 조명아래 소쉬르의 기호이론 개념을 토대로 가장 두드러진

<표 3> 왕 의례복식에 나타난 기표와 기의 분석

요소	기표	각 조형요소의 기의와 조형미 특징	design 응용
색채	현색	하늘 즉 우주를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초월적 존재를 의미하며 엄위(嚴威) 혹은 숭고함의 표현으로 사용	작품디자인을 위한 색의 구성은 컨셉에 맞추어 숭고미와 격조미를 표현 할 수 있도록 두벌의 수트에 현색과 청색이 겹쳐 나타나는 심청색을 사용하며, 이브닝코트에 적색과 자색을 사용함.
	청색	동방을 의미하며 생명, 창조, 성장, 젊음을 의미	
	적색	남방을 의미하며 음양에 있어 양의 색으로 생성, 창조와 열정을 의미	
	자색	적과 청색 사이에 존재하는 오방간색의 색으로서 존영, 엄위, 부귀의 상징으로 왕실의 품격을 나타내는 색	
문양	용문	왕 의례복의 중심이 되는 문양, 면복의 양 어깨, 곤룡포 가슴과 등, 양어깨에 시문. 초월적 존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정치적인 순차윤리와도 관계가 있었다.	현대인에 내재한 개인지상주의와 prestige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왕의 상징이었던 용문양을 중심으로 구성. 불꽃은 용의 등 같기에 응용
	불문	불(화)문은 조약광휘(照約光輝)로 신민을 비추는 빛을 의미, 왕의 위치를 상징한다.	
	구름문	서운(瑞雲)을 의미	
소재	사	소재의 섬세한 투명성으로 인해 검은색 면복의 안에 착용한 중단이 비쳐 심청색(5B3/4)의 복식으로 표현됨으로 해서 느껴지는 고귀함과 격조 있음이 그 특징	소재의 구성은 착용 시간대의 용도에 맞추어 두벌의 수트에 운문사를 부분적으로 사용. 이브닝코트는 운문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광택감을 살림.
	운문사	용과 함께 나타나는 서운(瑞雲)을 직물의 전체에 암화문으로 표현한 품격 있는 직물로서 평직의 바탕에 변화적으로 문양을 두어 부피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여 왕가의 의례복에 사용	
형태	H-line, A-line	「상방정례(尙方定例)」에 명시되어있는 왕 의례복 분량은 길이가 길며 장중하고 소매 또한 크고 넓은 포를 제작하기 위한 것. 이러한 크기는 조선조 복식의 주요 특징인 예와 격조미의 시각적 특징이다.	이브닝코트의 형태는 의례복의 A-line을 응용. 수트의 형태는 몸에 맞으면서도 여유 있는 라인으로 하였다.

20) 劉頌玉(1991), 前掲書, p. 11.

조형요소를 분석하여 디자인에 응용하고자 한다. 왕 의례복식의 조형요소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표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현대화시킨다면 결과물인 개개의 작품은 그 기표들이 내포하고 있는 기의의 특질인 숭고미, 격조미, 길상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된다.²¹⁾<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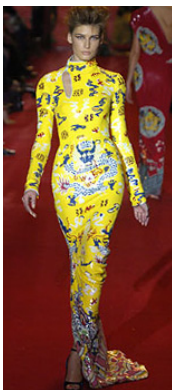
IV. 왕 의례복 문양요소가 응용된 디자인의 분석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용문양을 응용한 세계 주요 디자이너들의 최근 작업을 탐색하여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탐색과정에서는 연구의 목적인 한국궁중복식 조형요소와 미의 현대화 과정에 있어 국내 유명디자이너들의 작업데이터 검색과 파악이 여의치 않으므로 해외주요디자이너들의 작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아래 다섯 가지 작품들에서는 용문양이 갖는 숭고미, 상징성을 현대인에 내재한 개인지상주의에 접목하여 prestige 감성을 만족시키려는 시도가 관찰된다. 이는 우리 궁중의례복식에서 보여지는 조형미의 요소 중에서 숭고미와 격조미가 본래 우리 것과 다른 차원에서 화려하게 연출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일반적으로 외국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에서는 길상미에 대한 적용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여기서 궁중복식 디자인의 현대화와 소비시장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현대화 과정에서 개발, 또는 추구되어야할 우리의 조형미를 규정하고,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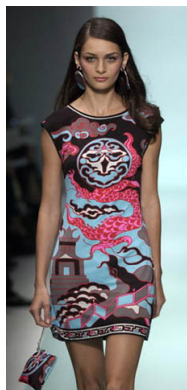
- 1) LEONARD의 원피스 드레스 - '04 S/S에 동양풍의 문양과 함께 도안화된 용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용머리의 청색과 몸의 홍색을 과감하게 대비시켜 해학적이고도 힘찬 느낌을



<그림 5> Yves Saint Laurent '04



<그림 6> Yves Saint Laurent '04



<그림 8> Leonard '04



<그림 8> John Galliano '05



<그림 9> Roberto Cavalli '05

21) 김경용(2005),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p. 27.

casual 원피스에 도입하였다.<그림 5>

- 2) JOHN GALLIANO의 하프 코트 - JOHN GALLIANO가 '05 F/W에 보여준 용문양은 황색의 소재에 청색과 홍색을 혼용하여 어깨에서 가슴에 이르는 넓은 면적을 사실적인 자수로 장식한 것으로서 후드가 달린 캐주얼 하프코트에 적용되었다. 용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특징이 럭셔리한 컨셉의 캐주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그림 6>
- 3) YVES SAINT LAURENT - '04 F/W의 일련의 용문양 드레스들은 연속되지 않는 one pattern으로 드레스 전면에 문양을 배치하는 동양 전통의 궁중복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용의 상징성과 화려함을 evening dress에 적절히 사용한 예이다.<그림 7>, <그림 8>
- 4) ROBERTO CAVALLI - '05년의 이 작품은 아드리안뒤부세 박물관 소장의 용 문양 도자기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드레스이다. 역시 one pattern으로 드레스 전면에 한 마리의 용을 크게 배치한 구성이 화려하다.

V. 왕 의례복 조형요소를 응용한 의상 제작

1. 작품 컨셉과 기획

2004 S/S 이후 각 컬렉션에서 동양풍 동물문양 사용이 빈번히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동양풍 트렌드와 상승 작용하여 제품화 되고 있다. 앞서 고찰한 정보를 토대로 동물문양 중에서도 뛰어난 상징성을 지닌 용문양의 숭고미, 격조미와 길상미를 적용, 구성하여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타겟 마켓은 전문직 혹은 문화계에 관련되어 있는 40~60대의 여성으로 하였다. 이들은 명

<표 4> 작품 디자인 컨셉과 기획

기 획	내 용
Customer Target	메인타겟 : 40세~50세. 서브타겟 : 40~69세의 여성으로 공식적 혹은 문화적인 모임을 자주 가지게 되는 전문직 종사자와 문화계 관계자.
Season Target	'07F/W. style : Urban chic의 덴디함. color : 다크톤의 확장으로 심해를 연상시키는 잉크블루의 영역. fabric : 정제된 엘리건트 감성의 모직과 중후한 럭셔리함이 있는 전통직물. pattern : Nature legend 영역. 상상의 동물, 용의 표피를 빛으로 표현.
작품 컨셉	절제된 라인과 색감. 고가의 자연 소재에 상징적 용문양사용. 격조를 바탕으로 한 럭셔리 컨셉.
디자인특징	중년 이후 여성체형을 고려하여 body fit line에 적절한 여유를 더하며, 어깨 혹은 collar를 강조. 음양의 원리를 고려하여 상의에 회(繪)를 쳐서 길상의 미를 적용하였다.

<표 5> 작품 디자인 요소

	제품명	구성	색채 및 소재	디자인 중점요소
디자인A	용문양 Pants Suit	자켓, 바지	Prussian Blue(5B3/4)/소모사 모직 silk100% 운문사	덴디한 느낌의 포멀수트 용무늬의 톤온톤처리.
디자인B	용문양 Top과 Skirt	조끼형탑, 스커트	Prussian Blue (5B3/4)/소모사모직 silk100%운문사 Blue(B4/8) / 운문사	여성스런 느낌의 캡소매수트 문양위에 비드처리. 옷감의 조합으로 단조로움에서 일탈시도
디자인C	Dragon Dinner coat	코트	Red Ocher(RP4/12) /숙고사 Red(R4/14) /숙고사	소매와 품을 넓게 하여 보다 전통적인 요소가미.

폼브랜드의 가치를 넘어 스스로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상품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 또한, 이들은 구입한 고가의 의상으로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수준과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고자한다. 따라서 그들의 요구는 숭고하고, 격조 높은 길상미를 추구하는 궁중복식의 조형요소와 부합된다고 본다. 본고의 기획 의도에 따른 작품 컨셉은 <표 4>와 같다.

2. 작품 디자인

디자인 A는 팬츠수트로 색채는 면복의 현색에 가까운 심청색이며 소재는 소모사 모직과 운문사로 한다. 디자인은 포멀한 수트로 부분적인 용 몸체의 문양을 상의 운문사 패널에 단색으로 처리하여 격조있고 genderless하며, 덴디한 느낌을 강조했다.

디자인B는 조끼형 상의와 미디 길이의 스커트로 구성된 투피스이다. 색채 및 소재는 심청색(Prussian Blue)의 소모사 모직과 운문사를 사용하고 청색(Cerulean Blue) 운문사를 조합, 톤 온 톤의 부드러운 변화를 시도 하였다. 짧은 캡소매 수트로써 용의 문양은 마치 연결된 것처럼 연상되도록 하였으며 문양 위에 비즈로 처리하여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디자인C는 용문양의 이브닝코트로써 색채 및 소재는 곤룡포의 붉은 색을 응용하여 적색(red)의 숙고사와 자색(red ocher)의 숙고사를 사용하였다. 디자인의 중점 요소는 소매와 품을 넓게 하여 보다 전통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표 5>

3. 의상 제작

1) 문양 제작

문양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인 고종 면복의 용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도안화 하였으며 유물의 색인 red를 작품의 소재 color인 심청색(Prussian Blue)과 청색(Cerulean Blue)에 적합하도록 작품의 컨셉에 따라 희미하게 탈색된 느낌의 그레이쉬톤으로 하였으며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다 도안화가 용이한 용의 몸통부분을 사

<표 6> 왕 의례복으로 부티의 용 문양 응용

	용문양의 원형	용문양 변색 및 변형	용문양의 소재 적용
고종면복유물로 부티의 문양 응용			

용함으로서 문양을 현대화하였다.

2) 디자인A

문화 행사나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formal wear로서 genderless한 격조미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였다. pants suit의 전체적인 비율은 jacket 과 pants를 1:1.618로 황금분할 하였으며 리듬감을 주기 위하여 wrapping을 추가로 제작, 장소와 때에 따라 evening wear로 착용 할 때에 두를 수 있도록 하였다.

면복 현의의 직선 깃과 쉘 형태를 응용하여 직선적인 asymmetrical balance로 패턴을 제작하고 wrapping을 겹쳐 입도록 하였다. 부분적인 용몸통 문양을 도안하여 jacket side waist pannel 에 신비롭게 그려 넣어 숭고한 길상의 미를 강조한 카리스마를 연출해보았다.



<그림 10> 디자인A - 용문양 pants suit

3) 디자인B

면복의 색과 문양을 응용, 문화 행사나 공식적인 모임을 위한 wrap sleeve의 formal wear로서 여성스러운 표현을 위해 skirt형으로 디자인 하였다. top과 skirt를 황금비율로 하였으며 asymmetrical balance로 패턴을 제작하고 우측 collar와 좌측 waist 여밈에 부분적인 용 문양을 그려 넣어서 숭고함과 더불어 음양의 조화를 통한 길상의 미를 추구했다. 같은 블루계열의 두 가지 색상의 천을 조합하여 톤 온 톤 색상조화를 통한 부드러운 품격을 표현해보았다. 착용자의 품위를 더하기 위해 스커트 양쪽으로 long scarf를 늘어뜨리는 겹쳐 입기의 형식으로 고급스러운 격조미를 더하였다.



<그림 11> 디자인B - 용문양 top과 skirt

4) 디자인C



<그림 12> 디자인C - 용문양 evening coat

Evening의 문화계 행사나 공식적인 혹은 사교적인 모임을 위한 coat로서 곤룡포를 응용한 풍성한 볼륨감을 통해 숭고미와 격조미를 표현하였다. coat의 품과 소매에서는 곤룡포의 전통 패턴을 사용해서 넓게 재단하여 체형을 감싸줌으로써 착용자의 너그러운 인품이 돋보이도록 고안하였다. 전체적으로 A line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hemline부터 어깨 그리고 collar까지 시선이 이어져 체형을 감싸면서도 길이감을 확보하여 키를 커보이게 하였다.

VI. 결 론

전통요소 현대화 작업이 부분적이거나, 국가적인 지원 아래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한국 궁중복식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연구와 현대화 시도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구장복과 곤룡포를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형태와 문양, 색감 등의 조형요소를 분석하여 왕의 의례복에 내재한 조형미, 즉 숭고미, 격조미, 길상의미를 재발견해보았다. 왕의 면복과 곤룡포에 나타나는 조형요소 중에 그 형태에서는 장중함이 관찰되었으며, 문양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징적인 신수(神獸) 용을 중심으로 산, 화, 화충, 종이, 조, 분미, 보, 불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용은 철학적으로 동양 사상의 근간에 존재하며, 이러한 사상은 시대의 변천과 함께 영수(靈獸)로서 더욱 심화하여 추상적으로 구성, 창조되어 왔으며 왕의 상징으로 삼아 신민과 구별되는 숭고미로 표현되었다.

격조미는 조선왕조 궁중의례와 그 복식에서 전반적으로 구현된다. 왕은 약 20점에 달하는 습의(襲衣) 형식으로 면복에서 그 격을 갖추고, 상복인 곤룡포에서도 포 전체에 양감을 더하여 격조미가 연출된다. 길상미는 왕의 의례복에 나타나는 음양오행의 원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면복구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9장문의 시문(施紋) 과정에서도 음양의 원리가 관찰된다. 화는 양사(陽事)이기 때문에 웃옷에, 수는 음공(陰功)이기 때문에 아래옷에 배풀었다.

이러한 궁중복식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서 왕 의례복에 시문된 용문양을 응용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최근의 작업을 탐색하여, 5점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탐색과정에서 국내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자료들의 탐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탐색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주로 조형미를 기준으로 용문양을 응용한 작품들을 분석한 결과, 숭고미와 격조미는 넘치게 연출되었지만, 모든 작품에서 길상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디자이너들이 동양사상과 철학에 익숙지 않은 데서 연유되었으리라 유추된다. 따라서 궁중복식 연구가로서 조형미의 정수인 숭고함과 높은 격조와 길상의미를 끌고루 어우르는 디자인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직접 궁중복식 조형미의 정수를 어우르는 디자인과 그에 따른 의상의 제작을 시도해보았다.

실체적인 작품제작의 기획 컨셉으로 부분적인 용몸통 문양을 사용하여 상징적인 숭고미와

고품격의 격조미, 그리고 음양의 원리를 터득한 길상의 미를 충분히 적용하여 연출함으로써 명품화를 통한 궁중복식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타겟 소비자 마켓으로는 40-50대의 전문직 종사자와 문화계 관계자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화라 할 때에 그 현대화된 상품의 시장화 유형을 일반대중화와 고품격 명품화로 나누어 본다면 필자는 궁중복식의 특성상 명품화한 시장접근이 궁중복식의 정수인 송고미, 격조미와 길상미와 같은 조형미의 연출과도 부합된다고 본다. 또한 이미 국내에 명품에 대한 욕구에 익숙하고, 프레스티지한 감성에 길들여진 소비자 집단의 마켓이 형성되어 있기에, 그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결 할 새로운 그 무엇을 부여하는 것이 궁중복식의 현대화에 꼭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여기서 그 무엇에 대한 정의는 프레스티지한 감성의 한계 내에 존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현대화의 초기 과정에서는 국가와 연구계와 상권이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도모해야만 바른 내용과 적합한 결과물이 도출되면서도 전통성을 갖는 한류의 브랜드화가 가능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궁중복식문화의 정수를 조화롭게 융해시켜 현대적인 의상에 연출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화를 위한 접근 보다는 궁중복식의 조형미를 강조하는 명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접근이 보다 효율적인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序禮 卷之1. 吉禮 祭服圖說.
尙房定例 大殿冕服.
增補文獻備考. 章服條.
國朝五禮儀序禮. 殿下視事服圖說.
유송옥, 김경실, 간호섭 (2006). 패션디자인. 수학사.
유송옥 (1998). 韓國服飾史. 수학사.
유송옥 (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수학사.
大漢韓辭典. 博文出版社. 調.
백기수 (1977).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백기수 (1984). 한국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Francois Boucher (1987). 2000 Years of Fashion.
New Chapter by Yvonne Deslandres Harryn. New York: Abrams, Inc., Publishers.
김경용 (2005).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김경실 (1998). 조선왕조 궁중진연의례에 나타난 복식의 조형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민주식 (1994). 한국고전미학사상의 전개.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서우석 (1986). “韓國音樂美의 現象學的 敍述-韓國傳統美의 特殊性과 普遍性. 예술과 비평.

李貞淑 (1979). Schiller美學에 있어서의 人格美.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상은 (1990), 유가의 예악 사상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http://www.samsungdesign.net>

<http://www.style.com>

<http://www.artsiteguide.com>